

# 전북 지신굿 내용 구성과 지신의 특징 연구

---

임니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수료, 음악학 전공

nina214@hanmail.net

---

- I. 머리말
  - II. 전북 지신굿의 내용 구성
  - III. 전북 지신의 특징
  - IV. 전북과 타 지역의 지신굿 비교
  - V. 맷음말
-

## I. 머리말

---

지신굿은 땅을 주관하는 지신(地神)을 위해 행하는굿이다. 예전 농경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집터를 마련하여 집을 짓고 농업을 통해 삶을 영위했으며,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토지를 경작하고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이 크게 발달했다. 이러한 농경사회에서 땅의 의미는 특히 중요했으며, 우리가 생활하는 터전과 밀접한 지신 또한 소중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신은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안택 관련 의식에서 빠지지 않고 섬기는 신이었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 다른 종교로의 대체, 그리고 주거 형태의 변화 등에 따라 가신신앙이 많이 약화되었고, 그 결과 지신신앙도 쇠퇴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 사회에서 지신신앙의 의식 행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거나, 주로 집 뒤뜰에 모시는 철용과 혼용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의 가정신앙』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자료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신을 모셨는지를 지역별로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sup>1</sup>

---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17086139).

1 국립문화재연구소(편), 『한국의 가정신앙: 경기도 편』(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국립문화재연구소(편), 『한국의 가정신앙: 충청북도 편』(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c); 국립문화재연구소(편), 『한국의 가정신앙: 충청남도 편』(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b); 국립문화재연구소(편), 『한국의 가정신앙: 강원도 편』(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a); 국립문화재연구소(편), 『한국의 가정신앙: 경상북도 편』(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b); 국립문화재연구소(편), 『한국의 가정신앙: 경상남도 편』(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a); 국립문화재연구소(편), 『한국의 가정신앙: 제주도 편』(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c); 국립문화재연구소(편), 『한국의 가정신앙: 전라북도 편』(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b); 국립문화재연구소(편), 『한국의 가정신앙: 전라남도 편』(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a).

이 외에도 지신 관련 논의는 가신신앙의 범주 내에서 지신을 간략하게 살펴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sup>2</sup> 또한 터주<sup>3</sup>신앙과 관련된 논문이 발표되었고, 서울과 고성의 재수굿을 중심으로 한 한국 무속의 신격 연구에서도 지신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졌다.<sup>4</sup> 한국 고대종교에서 천신의 배우자로서 지신신앙의 구조를 밝히고자 한 연구와 마을 단위로 지신을 위해 행한 지신밟기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sup>5</sup>

- 
- 2 안혜경, 「가정신앙에서 남·여성의 의례적 위치」, 『실천민속학연구』 7(2005), 101~128쪽; 김명자, 「집과 가족을 일체화하는 가정신앙」, 『비교민속학』 32(2006), 125~151쪽; 이필영, 「가정신앙과 제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24(2007), 389~440쪽; 최종성, 「가정신앙에 대한 재고: 가정신앙의 범주, 신, 그리고 의례」, 『종교학연구』 27(2008), 67~86쪽; 홍태한, 「강화군 교동도 가정신앙 전승의 다양성」, 『도서문화』 35(2010), 237~258쪽; 강화문화원 가정신앙조사단(편), 『강화의 가정신앙 1-2』(서울: 민속원, 2010); 홍태한, 「친정에서 따로온 가정신앙의 양상과 의미: 강화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20(2010b), 411~433쪽; 김명자·장장식·홍태한·윤동환·염원희·유선영, 『강화 가정신앙 연구』(서울: 민속원, 2011); 윤동환, 「강화도 가정신앙의 대상과 유형」, 『실천민속학연구』 17(2011), 225~249쪽; 충청남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편), 『가정신앙, 마을신앙: 집·마을·자연에 깃든 오래된 신령과 의례』(충청남도·공주: 충청남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2); 황루시, 『삼척의 가정신앙』(삼척: 삼척시립박물관, 2015); 최자운, 「평택의 가정신앙의 양상과 의미」, 『평택문화연구』 2(2020), 43~62쪽 등.
- 3 각주 1에서 제시한 자료를 참고하면, 터주는 흔히 지신과 혼용하여 사용된다.
- 4 김명자, 「경기 지역의 터주신앙」, 『역사민속학』 9(1999), 169~190쪽; 정연학, 「한중 가신 신앙의 비교: 성주, 업과 재물신, 삼신, 터주와 토지신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35(2008), 131~167쪽; 김동주, 「터주신앙과 업」, 『광장』 179(1988), 258~269쪽; 서해숙, 「한국 터주신앙의 쌀 봉안의례와 문화권역」, 『지방사와지방문화』 12-2(2009), 135~171쪽; 심상교, 「한국무속의 신격연구 1: 서울과 고성의 재수굿을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36(2018), 365~414쪽.
- 5 이은봉, 『한국고대종교사상: 천신·지신·인신의 구조』(서울: 집문당, 1984); 정미영, 「지신밟기계 민속놀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5); 류상일, 「경남지역 지신밟기 성주풀이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0); 김병찬, 「지신밟기소리의 전승 원리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부산광역시(편), 『동래지신밟기』(부산: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2014); 최자운, 「부산·경남지역 지신밟기 공연의 추이와 의의」, 『한국민요학』 40(2014), 223~247쪽 등.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가신신앙의 큰 범주 내에서 지신신앙을 간략하게 서술하거나, 터주신앙에 대한 논의에서는 주로 터주의 신체(神體)와 터주를 섬기는 방식에 중점을 두었다. 이로 인해 선행연구에서는 지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무가(巫歌) 사설에는 지신에 관한 유용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특히 전북 지역에서 지신굿이 많이 채록되었다. 전북 지신굿 무가에서는 지신의 근본 및 내력, 생김새 및 치례 묘사, 성격 등을 노래하여 이전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지신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지신신앙의 쇠퇴와 더불어 지신을 모시는 의식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주로 집 뒤뜰에 모시는 철융과 혼용되는 상황 속에서, 전북 지신굿 사설에서 지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이러한 연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이와 함께 지신에 대한 다양한 묘사와 그 의미를 분석한다면, 전통 신앙의 현대적 재조명과 지속 가능성은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삶과 밀접한 터전을 주관하는 지신은 중요한 연구 대상이지만, 지신굿에 중점을 둔 연구는 드물고,<sup>6</sup> '지신에 대한 논의도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지신굿이 많이 채록되었고 사설 내용이 풍부한 전북 지신굿 무가를 분석하여, 지신굿의 내용 구성과 그 내용에 따른 지신의 성격 및 특징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북의 무의식은 무당의 문서가 우수하고 예술성이 뛰어났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 쇠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에 기반한 여러 보고서나 무가집이 발행되어, 이 자료를 통해 전북 무가의 사설 연구가 가능하다.

---

6 윤신향, 「박영희의 지신굿(1993/94), 민속음향의 이산 혹은 재현」, 『音·樂·學』 19(2010), 121~152쪽 논문이 있으나, 이는 창작국악에 관한 연구이므로, 지신굿에 관한 연구로 보기 어렵다.

표1-무가〈지신굿〉자료 목록

지역	연행자(채록연도)	출처
전북 순창	김야무(1965)	김태곤,『한국무가집 2』(1971)
전북 부안	성씨(1966~1970)	임석재,『줄포무악』(1970)
전북 고창	배성녀(1969·1976)	김태곤,『한국무가집 3』(1978)
전북 전주	성화춘(1969)	최길성,『한국무속지 1』(1992)
전북 위도	조금례(1983)	하효길,『위도의 민속』(1987)
전북 군산	황분순(1988)	박순호,『한국구비문학대계 5-4』(1984)
전북 옥구	윤말례(1988)	박순호,『전북 전통 민속 下』(1990)
전북 정읍	신귀녀(1996)	김성식,『전북의 무가』(2000)
전북 정읍	전금순(2006)	이영금,『전북 씻김굿』(2007)
강원도 고성	윤을득(1968)	김태곤,『한국무가집 1』(1971)
평양	정대복(1973)	김태곤,『한국무가집 3』(1978)
경기도 화성	심복순(1973)	김태곤,『한국무가집 3』(1978)
경기도 화성	김수희(1973)	김태곤,『한국무가집 3』(1978)
전남 진도	미기재 <sup>7</sup> (1980~1981)	문화재관리국(편),『진도지방 무의식』,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4: 무의식편』(1983)
동해안	빈순애(1994)	문화재관리국(편), 『강릉단오제 실측조사보고서』(1994)

이 연구는 이러한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가집 및 보고서에 채록된 전북 지신굿 사설을 분석하고자 한다. 무가집 및 보고서에 확인된 전북 지신굿 연행자는 대략 9명이며, 이들의 자료는 〈표1〉에 정리했다.

전북 지신굿의 무가 연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전북의 특징을 더욱 부

7 진도의 지신굿은 가창자명을 기술하지 않았으며, 보고서에 작성된 보유자 명단에 있는 무녀 중에 연행자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진도 무의식의 보유자에 관해서는 문화재관리국(편),『진도지방 무의식』,『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4: 무의식편』(서울: 문화재관리국, 1983), 42~43쪽에 정리되어 있다.

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 이외 지역에서는 지신굿에 대한 무가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표1>에 제시된 지역의 무가집 및 보고서에서 지신굿의 내용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전북과 다른 지역의 지신굿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II. 전북 지신굿의 내용 구성

지신굿은 축원굿과 경사굿 등의 집굿과, 집굿에서 행하는 절차들이 전반부에 배치된 묵은시끔굿에서도 연행된다. 이를 통해 지신굿이 주로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전북 지신굿의 사설 내용을 분석하고, 지신굿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참고로 보고서 및 무가집에는 다양한 내용이 집합되어 있으나, 각 내용이 구분 없이 채록되어 있어 구성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 연구는 무가의 구성 요소와 각 구성에 따른 내용을 찾아내는 작업을 선행한 후에야 진행될 수 있었다.

지신굿 사설이 채록된 9인의 무가 중 부안의 성씨와 정읍의 전금순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지신굿의 무가는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으며, 성씨와 전금순은 전반부에서 도입과 청신(請神)에 관한 무가를 노래한다. 무녀들은 지신굿의 본격적인 내용을 노래하기에 앞서, 그들의 무조신(巫祖神)인 공심을 부르며,<sup>8</sup> 철학 사상에 근거하여 굿이 열리는 공간과 시간을 설

8 무조신을 청신하는 무가 내용은 대개 '아왕 임금아 ~ 공심은 저러지요, 남산은 본이로구 나'로 되어 있으며, 무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전북에서는 주로 이 지역 무조신인 공심을 부르는 것으로 노래를 시작한다. 무조신 공심에 관한 내용은 임니나, 「공심 무조권과 무조신의 재해석」, 『한국고전연구』 27(2013), 223~263쪽을 참고하면 된다.

명하는 시공간 우주론,<sup>9</sup> 우주만물 등의 창제에 대한 무가, 그리고 굿 연유 등을 밝힌다. 여기에 전금순은 실제 굿이 진행되는 장소를 노래하는 내용을 더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도입’으로 구분했다.

도입에서 성씨는 굿의 연유를 ‘이 석시는 오방신장(五方神將) 좌우지신(左右地神)의 석시오라’라고 하여, 방위를 나타내며 신을 호명한다. 이는 지신이 단순히 터전만 관련된 신이 아닌, 삶의 공간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전금순은 이 부분에서 ‘성주지신님께’라고 하여 성주와 관련하여 지신을 표현한다. 지신을 집안의 중요한 신인 성주와 함께 호명함으로써, 지신의 가신(家神)적 면모와 성주와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려는 연행자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성씨와 전금순은 도입 이후 지신과 관련된 여러 신을 부르며, 청신을 진행한다. 이 내용은 9인의 전북 지신굿 연행자 가운데 두 무녀의 지신굿 무가에 서만 채록되었다. 두 무녀는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과 천룡<sup>10</sup>(철용), 다섯 방위를 지키는 오방신장, 그리고 토주(土主)신<sup>11</sup>을 부른다. 특히 성씨는 팔부지신(八部地神), 좌우지신, 오방위 오방색 지신<sup>12</sup>도 청한다. 이 중 팔부지신은 불교

<sup>9</sup> 시공간 우주론은 부안의 성씨만 노래했고, 나머지 연행자들은 공간만 거론한다. 시공간 우주론 중 공간은 대체로 ‘조선은 國이요 八萬은 사두연에’로, 시간은 ‘대[時代]는 석가님의 대요, 대월은 서른 날, 소월은 이십구일’로 설명한다. 팔만은 불교에서 수가 많은 것을 나타내는 ‘八萬四千’, 사두연은 불교의 ‘사두’(Sindhu의 음사어)에서 비롯된 것이라 짐작된다. 시간 또한 불교의 석가님의 시대라고 했으며, 음력 큰달 30일과 작은달 29일의 역법의 원리로 표현한다. 이 때문에 시공간 우주론이 철학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다. 김길상, 『불교대사전』(서울: 홍법원, 1998), 2667~2668쪽; 임니나, 위의 논문(2013), 239쪽; 임니나, 「전북 시금굿 무가의 구성과 의미: 출포·김봉순·신귀녀·전금순 무가를 중심으로」, 『한국학』 165(2021), 118쪽.

<sup>10</sup> 천룡은 앞서 언급한 ‘철용’과 동일한 신으로, 무가에서는 ‘철룡’ 등으로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기도 한다.

<sup>11</sup> 토주신을 성씨는 토주신령, 전금순은 토주대감이라 부른다.

<sup>12</sup> 東의 靑帝地神, 南의 赤帝地神, 西의 白帝地神, 北의 黑帝地神, 中央의 黃帝地神. 임석재, 「제

의 팔부신장(八部神將)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팔부신장은 천룡팔부라고도 불리는데, 무속에서 '천룡'이 하늘을 의미할 때도 있어<sup>13</sup> 땅의 지신과 짹을 이루어 언급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금순은 집안 출입을 통제하는 대문을 지키는 신인 문호대감과 수문장도 청신한다. 신들을 굿판에 청신하기 위해서는 문호대감과 수문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이들 신을 호명하는 것이다.<sup>14</sup> 이 외에도 전금순은 오방위 오방색 장군 지신과 12지지 남녀지신 등을 열거한다.

중반부에서는 두 무녀가 지신 관련 내용을 부른다. 성씨는 다른 연행자들이 주로 노래하는 지신의 생김새 묘사, 지신이 세간을 불어 놓는 대목, 지신이 재복을 주는 내용 등을 노래한다. 이 가운데 지신이 재복을 주는 내용에서 지신이 농사법을 마련했다는 점과 입춘서를 붙이는 대목을 첨가한 점이 성씨의 독특한 특징이다. 반면 전금순은 지신의 생김새 묘사와 지신이 재복을 주는 내용을 제외하고 다른 무녀가 가창하지 않은 내용이 많다. 즉, 지신 관련 내용에서는 지신이 나오기까지의 내력, 지신의 치례, 매월의 세시풍속과 관련된 월령가(月令歌), 그리고 지신의 도섭에 대한 무가를 부른다. 또한, 지신께 발원하기 전에 <불설지신경>과 여러 지신들을 호명하는 내용을 덧붙인다.

일반적으로 다른 신들은 생김새를 묘사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지신굿에서는 지신의 생김새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점이 특이하다. 지신이 세간을 불어 놓고 농사와 관련된 재물을 불러들이는 대목에서는 지신의 재복신 성격이 잘 드러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씨의 무가에서는 액을 막고 집안에 좋은 기

---

79호 출포무악,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11』(서울: 문화재관리국, 1970), 438쪽.

13 천룡은 불교의 제신명으로서 천룡팔부에서 나온 신격이며, 하늘의 용궁에 거처하면서 비를 내려 주는 역할을 하여 天神에 속한다고 한다. 향토문화전자대전(<https://gochang.grandculture.net>).

14 이영금, 『전복 셋김굿: 전금순의 무가』(서울: 민속원, 2007), 44쪽.

운을 불러들이기 위해 입춘서를 붙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전금순은 전북 다른 무녀의 무가에서는 없는 내용을 부른 점과 이전에 채록된 전금순 무가 자료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sup>15</sup>는 점을 고려할 때, 나중에 여러 내용을 추가하여 지신굿을 연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후반부에서는 가내의 소원을 기원하는 발원으로 끝맺는다. 성씨는 지신께 발원하기 전에 수차 수감하라고 노래한다. 여기서 ‘수차 수감’은 여러 차례 감응(感應)하시라는 의미로, 신이 감응해야 소원을 잘 들어줄 것이라 여겨, 이를 노래한 것으로 이해된다. 전금순은 발원 전에 오신(娛神)의 〈신풀이무가〉와 고풀이 의식을 진행하며 〈고풀이무가〉를 부른다. 통상적으로 고풀이는 망자의 천도를 위해 고풀이 절차에서만 연행되지만, 전금순은 신들을 위해 고를 풀어주는 의식과 노래를 행한 점이 매우 특이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안의 성씨와 정읍의 전금순이 부른 지신굿의 무가 내용을 〈표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순창의 김야무, 위도의 조금례, 정읍의 신귀녀는 모두 무조신을 청신하며 지신굿을 시작한다. 조금례와 신귀녀는 도입에서 ‘굿은 한 굿이라도 석은 각 가지 석’이라는 굿 석에 대한 설명을 부른다. 김야무와 조금례는 굿을 정성껏 준비했음을 알리는 굿 준비 치성에 대한 무가를, 김야무와 신귀녀는 공간 우주론을 노래한다. 이 외에도 김야무는 굿이 열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조금례는 정성들여 준비한 굿을 잘 받으라는 감응 관련 무가도 부른다. 여기까지 전반부에 해당하며, 무녀마다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중반부에서는 김야무와 신귀녀의 무가에서 지신의 근본을 밝힌다. 김야무

15 1992년 채록된 전금순 무가에는 도입의 굿 연유, 청신의 오방위 오방색 장군 지신, 12지지, 지신 내력·치례·도섭·재복 주는 지신, 감응과 발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김익두 외, 『정읍지역 민속예능』(전주: 전북대학교박물관, 1992), 135~136쪽.

표2-성씨 · 전금순의 지신굿 내용 구성

구분	부안성씨		정읍 전금순	
전반부	① 도입	무조신 청신, 시공간 우주론, 〈창세무가〉, 우주만물 창제, 굿 연유	① 도입	무조신 청신, 공간 우주론, 〈창세무가〉, 천지인·우주만물 창제, 굿 장소, 굿 연유
	② 청신	집터 관련 각신, 오방위 오방색 지신	② 청신	집터·문(門) 관련 각신, 오방위 오방색 장군 지신, 12지지 남녀지신
중반부	③ 지신 관련 내용	지신 생김새 묘사, 세간 불어놓음, 재복 주는 지신 (지신 농사법 마련), 입춘서 붙이기	③ 지신 관련 내용	지신 내력, 지신 생김새 묘사, 치례, 월령가(月令歌), 지신 내력, 도섭, 재복 주는 지신, 발원
			④ 신호명, 발원	〈불설지신경〉, 각지신[오방위 천황 지신, 대문·성주·오방·토주, 상·중·하방, 육십갑자 천간지지, 하도(河圖) 방위론], 발원
후반부	④ 감응, 발원		⑤ 오신· 고풀이	〈신풀이무가〉·〈고풀이무가〉
			⑥ 발원	

는 마당 한가운데 주추 밑을, 신귀녀는 상기둥 주초(柱礎) 밑을 지신의 본(本)이라고 설명한다. 세 무녀는 지신의 생김새를 묘사하고, 지신이 세간을 불어놓는 대목을 부른다. 이 과정에서 조금례와 신귀녀는 지신이 재복을 주는 내용을 노래하며, 신귀녀는 부안의 성씨와 마찬가지로 지신이 농사법을 마련했다는 것도 언급한다. 중반부에서는 조금례의 무가에서만 수록된 내용이다. 조금례가 중반부 앞부분에서 부른 지신님이 동하면 여러 좋은 일이 생긴다는 내용은 지신님의 '역할'과 관계된다고 보았으며, 지신님네가 내림받아 이 터 명당을 바라본다는 내용은 '명당풀이'로 분류했다.

후반부에서는 김야무를 제외하고 조금례와 신귀녀가 가내와 관계된 발원을 하면서 마친다. 다만, 조금례는 발원 전에 정성들인 굿을 지신님네 내림받으라는 감응에 대한 내용을 노래한다. 세 무녀의 지신굿 사설 내용을 표로 정

표3-김야무·조금례·신귀녀의 지신굿 내용 구성

구분	순창 김야무		위도 조금례		정읍 신귀녀	
전반부	① 도입	무조신 청신, 공간 우주론, 굿연유, 굿준비 치성	① 도입	무조신 청신, 굿 석설명, 굿준비 치성, 감응	① 도입	무조신 청신, 공간 우주론, 굿 석설명
중반부	② 지신 관련 내용	지신 근본(주초 밑), 지신 생김새 묘사, 세간 불어 놓음	② 지신 관련 내용	지신 역할, 명당풀이, 지신 생김새 묘사, 재복 주는 지신, 세간 불어 놓음	② 지신 관련 내용	지신 근본(상지동 주초 밑), 지신 생김새 묘사, 재복 주는 지신(지신 농사 법 마련), 세간 불어 놓음
후반부			③ 감응, 발원		③ 발원	

리하면 <표3>과 같다.

배성녀·성화춘·황분순·윤말례의 지신굿에서는 전반부 없이 중반부 지신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앞서 살펴본 무녀들과 같이 지신의 근본과 생김새 묘사, 지신이 세간 불어 주고 재복을 주는 내용 등을 노래하며, 이러한 내용을 무녀마다 가감하여 연행한다.

연행자 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신의 근본에 대해 배성녀는 집을 지을 때 상기동 주초 밑이라고 했으며, 성화춘은 마당 한 가운데 청돌과 홍돌 안에 가만히 계신다고 했다. 황분순은 구중댓돌 주초 밑을 지신의 근본으로 언급하며, 다른 전북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석가여래의 말씀이 주초 밑에 열질 파고 넣어 두면 열두 방의 지신이 된다는 내용으로 주초 밑이 지신의 근본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성화춘과 윤말례는 지신의 역할과 관련된 무가로 지신굿을 시작한다. 성화춘은 지신이 가신가택을 편히 안심 시켜 주신다고 하며, 윤말례는 지신이 집안 구석구석을 불어 주고 수명장수를 시켜 준다는 내용 등을 노래한다.

마지막으로 성화춘과 윤말례는 가내 소원 성취를 위한 발원으로 지신굿을

표4-배성녀 · 성화춘 · 황분순 · 윤말례의 지신굿 내용 구성

구분	고창 배성녀		전주 성화춘		군산 황분순		옥구 윤말례	
중반부	① 지신 (상지동 주초 밑), 관련 내용 지신 생김새 묘사, 재복 주는 지신, 세간 불어 놓음	① 지신 관련 내용 지신 (마당 한 가운데 청돌·홍돌 안), 지신 생김새 묘사	① 지신 관련 내용 지신 (주초 밑), 세간 불어 놓음, 재복 주는 지신 (노적·업 불어 줌)	① 지신 관련 내용 지신 세간 불어 놓음, 재복 주는 지신 내용 지신 관련 내용 지신 세간 불어 놓음, 재복 주는 지신	① 지신 관련 내용 지신 세간 불어 놓음, 재복 주는 지신 내용 지신 관련 내용 지신 세간 불어 놓음, 재복 주는 지신	① 지신 관련 내용 지신 세간 불어 놓음, 재복 주는 지신 내용 지신 관련 내용 지신 세간 불어 놓음, 재복 주는 지신		
후반부			② 발원				② 발원	

마무리한다. 이제까지 논의한 네 명의 연행자의 지신굿 내용을 정리하면 〈표4〉와 같다.

전북 지신굿을 연행한 9인의 무가를 살펴본 결과, 전북 지신굿은 전반부가 도입과 청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반부의 지신 관련 내용에서는 지신의 근본과 생김새 묘사, 지신이 세간을 불어 놓고 재복을 주는 대목을 부른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지신님께 가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소원을 기원하는 발원을 진행한다. 이렇듯 지신이 어떠한 특징을 지닌 신인지에 대한 내용을 노래한 후, 신께 소원을 비는 무가로 이어지는 것이 전북 지신굿의 골자이다. 이러한 구조는 지신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하는 전북 집굿의 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 III. 전북 지신의 특징

이 장에서는 지신의 근본 및 내력, 지신의 생김새 및 치례, 지신의 성격 및 기능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지신이 어떠한 특징을 지닌 신인지에 관해 알아보자 한다.

## 1. 지신의 근본 및 내력

지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북 무가에서 상기둥 주초(柱礎) 밑이 근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부 여행자들은 마당 한가운데나 구중댓돌의 주초 밑, 또는 청돌과 홍돌 안에 지신이 계신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주초는 초석(礎石)이라고도 하는데, 한국 전통 건축에서는 초석이 놓여야 기둥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초석을 다지다’와 같은 표현에서 초석은 어떠한 것의 기초가 되거나 기반을 다진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초석은 나무기둥의 뿌리를 보호하여 집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sup>16</sup> 또한 지신의 근본인 주초 기둥은 일반 기둥이 아닌, 기둥을 세울 때 중심이 되는 상기둥<sup>17</sup>이여야 한다. 이처럼 초석은 한국 전통 건축에서 기초가 되는 구조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군산의 황분순은 지신의 근본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신님네 본을받세 어이어~ 거이기야 지신받는님 거동보소 천살전의가 떨려서 지신살전의가 따리어서 열두곤이나 막어 놓고 오오오~ 거이기라 먹여입힐길 이 가이없어 복을 빌려 가실적에 석가여래 허신 말씸 그물건네 가지말고 구중댓돌 주초 밑이 열질파고 넣어 두면 열두 방의 지신되야 어허허~ 거이기라 이와같이 불어 줄제 먹고입고 사오리다 지신세간 불어 주세 …<sup>18</sup>

16 국립민속박물관(편),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 2』(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19b), 661쪽.

17 성주가 으뜸신이기에 집안의 중심인 대청의 상기둥에 자리 잡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국립민속박물관(편),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 1』(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19a), 31쪽.

18 박순호, 『한국구비문학대계 5-4: 전라북도 군산시·옹구군 편』(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396~397쪽.

이 무가는 한 가난한 이가 이를 해결하고자 석가여래께 빌었더니, 석가여래가 주초 밑에 열질 파고 어떠한 것을 넣어 두면 먹고 입고 살 수 있다고 말 씀했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주초 밑이 자신의 근본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자신이 가족의 생계를 돋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초(초석)의 의미와 역할은 자신이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터전과 공간을 주관하며, 가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근본이 상기등 주초 밑으로 설정된 것이다.

황분순 무가의 ‘주초 밑에 열질 파고 넣어 두면’에는 자신 신앙에서의 의식 행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주초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면, 실례로 주초 옆에 땅을 웁푹 파고 그 안에 제의 음식물이나 곡물을 담은 단지를 묻는 등의 의례 흔적이 삼국시대 이후 많은 건물지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필자는 이러한 형태의 의례를 건축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해석한다.<sup>19</sup> 그러나 이를 무가 내용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조왕이 부엌에 좌정한 신이기에 부엌에서 물 한 그릇 놓고 발원하듯이, 주초 밑이 자신의 근본이기 때문에 주초 옆에 땅을 파고 자신에게 의례를 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주초 옆 땅 밑에서 의례를 행한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 가신신앙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신신앙은 다른 가신신앙에 비해 많이 약화되었다고 한다.<sup>20</sup> 이에 따라 주초와 관련된 지신신앙 또한 일찍이 사라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하여 성주하면 대들보가 떠오르고 상량신(上樑神)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자신은 마땅히 생각나는 것이 없으며, 주초 밑에 좌정된

19 주초는 초석이라고도 하는데, 국립민속박물관(편), 앞의 책(2019b)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의례에 대해 기둥과 초석이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건축 구성 요소인 만큼 무엇보다 초석이나 기둥의 영구 안정과 나아가 건물의 안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국립민속박물관(편), 앞의 책(2019b), 662쪽.

20 국립문화재연구소(편), 앞의 책(2008b), 458~459쪽.

신이라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지신의 내력에 대해서는 전금순 무가에서만 나타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신이 시집살이를 했으며 낭군님의 의복을 잘 만들어 어진 가정의 주부라고 칭찬받았다고 되어 있다. 전금순은 지신을 여성으로 표현하며, 인간적인 모습으로 묘사한다. 즉 지신을 단순한 신앙의 대상이 아닌, 고단한 여성의 삶을 경험한 존재로 그려 낸다. 이러한 지신의 내력은 다음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흘 다섯에 어리다 열 다섯에 예절이다 스물 다섯에 시집살이다 서른 다섯에 자식 낳는 호강이다 마흔 다섯에 가장 내 시집살이 쉬운 다섯 자식 시집살이만 허시던 지신님이 이제는 **화통허시어** 가정 감싸신 지신대감 지신님의 도섭으로 초저녁 닭 우는 것도 지신님의 도섭이요 강아지가 문발로 마당 파는 것도 지신님의 도섭이요 딸애기가 바람나서 다니는 것도 지신님의 도섭이요 **농사 장만 허는 것도 지신님의 도섭이라** …

전금순 무가에서 지신은 나이에 따라 여성의 삶을 살아오다가 화통하게 되어 여러 도섭을 행하게 된다. 이는 지신이 단순히 가정에서의 내조만 하던 인간적인 모습에서 여러 도섭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영험한 존재로 변모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초저녁 닭 우는 것과 강아지가 마당 파는 것 등의 도섭을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사건조차 지신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지신이 가정의 모든 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전금순 무가는 지신을 인간적이고 친근한 존재로 묘사하면서도, 영험함과 신성함을 동시에 강조하여, 지신 신앙의 깊이를 더한다. 이러한 표현은 전통 신앙에서의 지신의 역할이 가정과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존재임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지신은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터전과 공간을 주관하는 중요한 신으로, 집의 기초가 되는 주초 밑에 위치한다. 이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지신의 근본인 주초 주변에 땅을 파고 의례를 행했을 것으로 짐작되나, 지신 신앙의 쇠퇴와 함께 이러한 의식 행위는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 전금순 무가에서는 지신이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면서도 일상적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신성한 존재로 표현된다. 이로써 지신에 대해 좌정된 장소의 의미와 신앙 의식, 그리고 가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먹고사는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이 밝혀졌다.

## 2. 지신의 생김새 및 치례

지신의 생김새를 묘사한 무가는 군산의 황분순을 제외하고는 모두 노래할 정도로 주된 내용 중 하나이다. 전북의 다른 가신(家神)에 대한 무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의 생김새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특이하게 지신굿에서는 지신의 모습을 상세하게 표현한다. 8인의 연행자가 지신의 모습에 대해 비슷하면서도 다소 다르게 설명하는데, 이를 연행자별로 무가집과 보고서에 수록된 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⑦ 순창 김야무: 키는 쉰자[50尺] 키요 귀루 머리는 동이 머리 이매는 뒷박 이  
매여 볼은 섬으 보랑쟁이시고 코는 두자 코요 귀는 납작 귀요 손은 거우 손이라  
발은 황애 발에 모냥 없구 맵시 없게 생겼세두 복이 많에서 불어 주던 지신대장  
이시로구나

㉡ 부안 성씨: 地神님이 생기기는 머리는 용으 머리 귀는 쉰 지 귀요 이매는 뒷  
박 이매 눈은 밴재 눈 코는 유자 코요 입은 뱕치 입이고 택은 주걱 택이고 두 손  
은 칼퀴 손이요 양 수동 발은 마당 발으 장구 통 배아지 실내키 모가지 생기기는

장부 머심 초름 생겼어도 밍과 복은 많더니라

④ 고창 배성녀: 키는 쉬자 키여 쉰자 머리 쉰자 주령 짚으시고 들노 나가시면  
키강 크고 물 좋은 논 불어 놓고 밭으로 나가시면 키강 크고 살 좋은 밭 불어 놓  
던 지신 대장군 아니시오

⑤ 전주 성화춘: 지신님 어터게 생계던고 키난쉰자키요 널부도 쉰자널비요 무  
쇠옷션 입으시고 무쇠갓슬 씨웁시고 무쇠주령 집난듸 머리난 방석으 머리요 눈  
은 유리눈이요 이마는 되박이마요 코는 유자코 턱은 주걱택 귀난 납달개귀요 목  
은 단벼랑 목이요 가심은 쌍얼기 가심배는 부동배요 억개는 명억개요 양수동달  
리발른 황하수발릴네라 그러케 생씨나 복은 만하시던가 부더라

⑥ 위도 조금례: 지신님네 상호봐라 귀도 쉬흔자 귀로구나 머리도 쉬흔자 머  
리로구나 임에열은 당두상은 강해너븐 발이로다 어지아니가 좋을 쏘냐

⑦ 옥구 윤말례: 발도 크고 손도 크고 머리는 아홉 자 머리로다 머리는 아홉  
자 머리고 손은 다 저 황해손이고 귀는 크고 귀는다인경코고 배는 수중벨이 되  
고 발은 마당발이올씨다

⑧ 정읍 신귀녀: 지신님네 천신 보소 지신님네 모냥 보소 키는 쉰자키요 머리  
는 용화머리 귀는 가사귀요 이마는 되빡이라 눈은 소상강의 물결 같고 서리같은  
두 눈썹은 윈 낯을 뒤를 덮고 코는 유자코고 입은 병어입이요 턱은 주걱턱 가슴  
은 어 - 용든 가슴 목은 자래목 팔은 전동팔이요 손은 조약손이고 발은 황애발  
이요 아무리 이히 - 천신은 그렇게 생겼어요 어무엽고 무서웁고 무서웁고 어무  
엽네

⑨ 정읍 전금순: 지신님네 풍채가 어찌나 크시던지 나만치나 뚱뚱허던가 보더  
라 몸도 대남허게 크시실제 이마는 뒷박이마요 눈은 황새눈 같고 코는 인경코요  
귀는 사발귀요 입은 바작입이요 손은 두꺼비손이요 다리는 수둥다리요 발은 마  
당발이라

전북의 지신굿 사설을 참고하면, 초반에는 지신의 순 자[50尺] 키나 큰 몸 등으로써 지신을 매우 거대하게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지신은 여성으로 여겨지며, 한국 신화에서는 여신이면서 거신(巨神)인 경우 창조신적 특징을 지닌다. 마고할미와 제주도의 설문대할망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마고할미는 전국적으로 전해지고, 설문대할망은 제주도에서 전승되었는데, 이 신들은 지형을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sup>21</sup> 이와 관련해서 지신도 창조신적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큰 신으로 묘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신 신앙이 쇠퇴하면서 창조신적 성격도 약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집안의 세간이나 농사법 마련을 비롯한 재복 등을 불어 주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지신이 거대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신의 거대한 모습 다음에는 지신의 이목구비를 포함한 얼굴의 생김새가 열거되며, 연행자에 따라 이마, 머리, 턱, 손, 발, 배 등이 좀 더 설명되기도 한다. 또한 목, 가슴, 어깨, 팔, 다리 등을 묘사한 경우도 있다. 무녀들이 노래한 지신굿의 생김새는 튀어나온 뒷박이마, 유자 코, 많이 작은 병어 입, 주걱 턱 등으로 모아 놓기에는 조화롭지 않고 매우 이질적이다. 이는 지신의 모습을 이상하고 괴기스럽게 묘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열거한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이 지신의 생김새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괴상한 형태로 지신의 신체를 묘사한 점에서 흥미롭다. 무녀 중 일부는 지신의 생김새를 노래한 후, 지신이 외모는 맵시 없지만 복을 많이 불어 준다고 마무리한다.

지신의 생김새를 묘사한 내용 중 ⑤ 고창 배성녀와 ⑥ 전주 성화춘은 밑줄로 표시한 것처럼 짤막하게 지신의 치례에 대해 노래한다. 배성녀는 지신이 주령, 즉 지팡이를 짚고 있으며, 성화춘은 무쇠 옷을 입고 무쇠 갓을 쓰며 무쇠 주령을 짚고 있다고 표현한다. 여기서 지팡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

21 권태효, 「여성거인설화의 자료 존재양상과 성격」, 『탐라문화』 37(2010), 227~229쪽.

이것이 지신의 어떤 면모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인지 의문이다. 지팡이는 걷기 위해 도움을 주는 도구로, 지신이 집안의 문제에 도움을 주는 신임을 상징한 것인지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화준이 지신의 치례를 ‘무쇠’로써 나타낸 것은 지신의 강인한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전금순은 치례에 관해 다른 여행자들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내용을 부른다. 즉, 노래로 ‘속걸 베는 예순 대자 치매 베는 쉬흔 대자 저구리 베는 서른 대자 수건 베는 스물 대자 버선 베는 열 대자’라고 부르고, 아니리로 이 무가를 부연한다. 전금순은 속것이 셋으로, 그 속것이  $2 \times 3 = 6$ 이라 예순 대자인 것이고, 치마도 단속곳·속치마·겉치마 셋이며 저고리도 적삼과 그 위에 또 입고 그 위에 겉저고리를 또 입는다고 한다. 이렇게 차려 입고 지신님이 나온다고 했다.<sup>22</sup>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웃이 예순 자라고 하여 자신을 거대하게 표현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설문대할망은 자신의 웃을 백성에게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지만,<sup>23</sup> 자신은 이처럼 직접 차려 입고 나타난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렇듯 전북 지신굿에서 나타나는 지신의 모습은 거대한 풍채와 함께, 뒷박이마, 유자코, 병어입 등 다양한 이목구비로 구성된 이질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외형에도 불구하고 지신은 많은 복을 불어 준다. 지신의 치례는 지팡이와 무쇠로 표현되거나, 지신이 직접 큰 의복을 차려 입고 등장하는 과정을 노래한 사례도 있다. 지신의 모습과 치례를 통해 지신의 창조신적 성격을 엿볼 수 있으며, 지신이 집안에 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신임을 알 수 있다. 괴기스러운 지신의 생김새를 자세히 묘사한 대목은 다른 가신에서 는 찾아보기 힘든 지신굿의 독특한 내용이다.

---

22 이영금, 앞의 책(2007), 123~124쪽.

23 김혜정, 「설문대할망 설화의 전승 양상과 신적 성격: 마고할미 설화와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63(2019), 100~101쪽.

### 3. 지신의 기능 및 성격

지신굿에서는 지신이 세간과 재복을 불어 놓는 장면이 지신굿의 주된 내용 중 하나이다. 이 두 대목의 노래 순서는 연행자에 따라 달라지며, 집에서 사용하는 세간을 부른 후 논이나 밭으로 공간을 이동하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 그런데 옥구의 윤말례 무가에서는 다른 무녀와 다르게 밭-부엌-논으로 공간이 변화한다. 지신이 세간을 불어 주는 것부터 살펴보기 위해 부안의 성씨 무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방안 시간을 부르[增]신다 방안 신간을 부르신다 각장 장판 소래 반죽 애경 대경 깨끼 소리 천은[純銀] 요강 순금 대야 대대 칭칭 반혀 놓고 全州 장롱 義州 장롱 자개 합농 반다지 인물 병풍 花草 병풍 네귀에 둘러 놓고 원앙금침 잣 베개 돌이 놓고 오단 이불 대단 요 일청 이청 돋어 놓고 은 초롱도 걸렸네 인두 가새 바늘 상자 오합 상자 대대 칭칭 괴여 있네 **부억** 세간 부르실 적으 큰 항으 노쇠 짚고 작은 항으 황금 치고 정상도[慶尙道] 젓 낌이 솔 충청도 가매 솔 全羅도 다갈 솔 큰 철 대 철 웨 철이며 은두 명두 부렸네 놋두 명두 부렸네 죽죽이도 부르시네 살관 살광 살광 각씨로 올라서 은 반상그 닷 단이요 은 술 닷 단 놋 술 닷 단 안성 유그 대모 접시 토인[統營] 칠판 일곱 축 대 양판 쇠 양판 죽죽이 부르시고 **장광**으로 올라서 쟁경 각씨 부를 적으 장 항으 장물 닷 말 지 항으 생강 꼬추 밀을 제껴놓고 장 담은 샘일[三日] 만에 단 꿀 서 말 제게 준다

지신이 세간을 불어 놓는 대목은 장소별로 세간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노래하기 때문에 지신의 근본과 생김새를 묘사하는 내용보다 긴 편이다. 성씨는 이 무가를 ‘방안 세간을 부르신다’로 시작하나, 다른 연행자들은 ‘불어 놓는다’나 ‘불어 준다’라고 표현한 것이 더욱 많다. 성씨 무가의 채록자는 부르

신다를 増으로 더하다, 많아지다로 해석했다. 이는 살림살이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해석이나, 다른 여행자들이 세간을 불어 준다고 노래한 것에서 거대한 신이 집안 곳곳에 살림살이를 불어 놓아 주는 의미가 좀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지신이 불어 주는 세간의 공간과 순서는 무녀마다 다르다. 앞의 예로 든 성씨는 방안, 부엌, 장광 순으로 세간을 열거했지만, 순창의 김야무는 방안과 주방, 고창의 배성녀는 집 외부의 외양간과 변소, 주방, 방, 광에 놓이는 세간을 부른다. 위도의 조금례는 방안, 주방, 집 외부의 대문과 홍문, 군산의 황분순은 집 외부의 문과 외양간 등, 방안, 주방, 곳간, 옥구의 윤말례는 주방과 뒤곁, 정읍의 신귀녀는 부엌, 뒤곁, 광 순서로 노래한다. 이들 무가 내용에서 는 기본적으로 방안과 주방이 언급되고, 여기에 곳간이나 집 외부 시설인 외양간, 문, 장독대가 있는 뒤곁 등을 거론한 무녀도 있다.

이와 같이 지신은 여러 살림살이를 집안에 불어 놓는데, 생활공간인 집안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바깥공간까지 재복을 불어 놓는다. 이 무가는 대략 지신이 농사법을 마련했다거나, 농사가 잘 되어 노적을 불어 놓고 잘 살게 해 주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에 황분순은 노적 다음에 지신이 업을 불러들인다는 것을 부르고, 성씨는 지신이 부자 갑부 되게 점지한다는 것을 덧붙인다.

지신굿의 이러한 내용을 통해 지신이 집안 곳곳 세간을 놓고, 농사법을 마련하며, 재물을 점지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무가에서 지신이 세간과 재복을 주는 모습은 재복신으로서 지신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 IV. 전북과 타 지역의 지신굿 비교

---

이 장에서는 타 지역의 지신굿 내용 구성과 지신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전북과 비교 분석할 것이다. 강원도 고성, 평양, 경기도 화성, 전남 진도, 동해안의 지신굿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5〉와 같다.<sup>24</sup>

〈표5〉에서 진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도입으로 시작하며, 이 부분에서는 굿이 열리는 장소와 시간, 굿의 연유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고성, 평양, 화성의 김수희, 동해안에서는 도입 이후 청신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는 지신을 비롯한 오방지신(五方地神)과 토주지신 등 삶의 터전 및 공간과 관련된 신들을 주로 부른다. 동해안의 빈순애는 방위별 호수를 지키는 오방위의 각 오방색 지신을 호명한다. 반면, 화성의 심복순은 도입 이후 터대감님께 굿을 즐겁게 받으시라는 감응에 대한 내용을 가창하며, 화성의 김수희는 도입과 청신 다음에 감응과 가중에 대한 발원 내용을 간단히 부른다. 여기까지가 지신굿의 전반부에 해당한다.

중반부에서는 연행자에 따라 부르는 내용이 다르게 나타난다. 경기도와 평양은 지신을 ‘터대감’으로 호칭하는 공통점이 있으며, 평양의 정대복과 화성의 김수희는 중반부에서 오신과 터대감에 대한 무가를 가창한다. 정대복은 노래로 터대감님이 노신다고한 후 춤을 추고 나서 공수로 터대감이 덕담하는 내용을 부른다. 김수희는 오신의 〈터대감타령〉을 노래한다. 그 다음에는 정대복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돈을 실어 가는 노래를, 김수희는 산신인 살음에 관한 무가와 〈업대감타령〉을 이어서 부른다. 화성의 심복순은 가정에 재물을 가득 불어 주는 터대감님이 화해동심(和解同心)하여 가정에 우환 없이 해

---

24 전북 이외 지역에서는 지신굿을 채록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편으로, 최대한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자 경기도에서는 세습무의 심복순과 강신무의 김수희 두 무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표5-전북 이외 지역의 지신굿 내용 구성

구분	강원도 고성 윤을득	평양 정대복	경기도 화성 심복순	경기도 화성 김수희	전남 진도 미기재	동해안 빈순애
전반부	도입, 청신	도입, 청신	도입, 감응	도입, 청신, 감응, 발원	—	도입, 청신
중반부	—	오신, 공수 (터대감 덕담), 돈 실어가는 노래	재복 주는 지신·감응 (화해동심)	오신 (〈터대감타령〉), 살용, 업 (〈업대감타령〉)	지신 근본(뜰 밑), 내력(백년종사 맺음, 지신 재간, 집 짓는 과정, 재복 주는 지신, 자손 번창, 농사장원 시킴) [하략]	—
후반부	발원	공수	발원	공수	—	발원·감응

달라고 노래한다. 이 부분은 지신의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에 지신께 화해동심하고 굿을 즐겁게 받으시라고 하는 무가를 부르는 구조이다.

전남의 진도에서는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은 조사되지 않았고, 중반부에서는 집의 뜰 밑이 지신의 근본이라 점을 밝히며 시작한다. 이후 주로 지신의 내력에 대한 내용을 노래하며, 이 과정에서 지신을 대개 성주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즉, 성주님네 아들애기와 지신님네 딸애기가 백년종사를 맺었다는 내용, 성주님네 아들애기가 짚신삼기와 지신님네 딸애기가 여지질삼의 재간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집 짓는 과정과 집안에 재복을 불어 주는 것, 자손의 번창과 관련된 내용을 부른 후, 지신이 농사장원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이후 ‘성주님네 본을 풀었으니 지신님네 본을 풀세’라는 구절이 채록 되었고, 그 뒤의 내용은 하략되었다.

후반부에서는 세습무들이 지신께 가내의 소원을 기원하는 발원을 하고, 강신무들이 공수를 하면서 마무리된다. 그러나 고성의 윤을득은 강신무에 속하지만, 후반부에서 지신께 발원을 했다. 평양의 정대복은 무가집에 후반부를

‘공수’라고 기술하여 〈표5〉에 그 부분을 공수로 정리했으나, 이는 신이 말하는 공수라기보다는 여러 지신 관련 신들이 잘 놀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동해안의 빈순애는 발원에 대한 무가 중에서 지신님이 굿을 반가이 받고 즐거이 받았다는 내용을 짧게 노래했으며, 이를 표에서는 ‘감옹’으로 정리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북 이외 지역의 지신굿은 일반적으로 도입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지신께 소원을 비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으며, 청신에서는 삶의 터전 및 공간과 관련된 신들을 부름으로써 전북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특히, 진도에서는 전북 지신굿에서 거론된 지신의 근본에 대해 밝히고, 전북의 지신이 주초 밑에 근본을 두고 있는 것처럼 진도에서는 뜰 밑을 그 근본으로 삼고 있다. 또한, 지신의 내력을 성주와 관련하여 설명하지만, 지신의 내력을 풀었다는 점에서도 전북과 비슷한 점이 있다. 화성의 심복순은 지신의 감옹에 관한 내용을 부르면서도 재복을 불어 주는 지신의 특징을 거론하며, 화성의 김수희는 재물과 관련된 업 관련 무가를 노래했다.

그럼에도 다른 지역의 지신굿은 전북의 지신굿처럼 지신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신이 소원을 잘 들어줄 수 있도록 지신이 잘 노는 데 중점을 두거나, 중반부에 지신 관련 내용이 결여된 경우도 있다. 반면, 전북 지신굿의 중반부에는 지신의 근본과 생김새, 세간과 재복을 불어 주는 대목 등이 담겨 있어, 지신에 대한 이해를 돋는 중요한 요소가 다수 포착된다. 즉, 전북 지신굿의 중반부는 지신의 성격과 특성을 드러내는 핵심 무가로, 이와 같은 내용이 전북에서 특히 많이 기록된 점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전북의 지신굿은 이러한 점에서 다른 지역과의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며, 지신과 지신 신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무가라 할 수 있다.

## V. 맷음말

---

지신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터전을 주관하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 대상이지만, 그동안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사설 내용이 풍부한 전북 지신굿 무가를 통해 지신굿의 내용 구성과 그에 따른 지신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상의 논의에서 도출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신굿은 주로 가내의 안녕을 목적으로 거행되어 집굿이나 집굿의 절차들을 포함한 묵은시끔굿에서 연행된다. 지신은 도입의 굿 연유와 청신에서 호명된 오방신장(五方神將)과 좌우지신(左右地神) 등을 통해 터전뿐만 아니라 삶의 공간까지 관장하는 신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사설 내용은 전반부의 도입과 청신, 중반부의 지신 관련 내용, 후반부의 감응과 발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지신의 역할 및 중요성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을 잘 드러낸다. 전반부의 도입은 지신굿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무조신 청신, 굿이 열리는 시간과 장소, 굿 연유 등을 고하는 과정이다. 청신에서는 대개 삶의 공간 및 터전과 연관된 신들을 부른다. 중반부의 지신 관련 내용은 지신의 근본과 생김새 묘사, 세간과 재복을 불어 주는 지신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진다. 후반부에서는 지신께 굿을 잘 받으시라고 감응하는 내용을 부르고, 집안의 소원을 잘 들어주십사 발원하며 마무리한다. 전금순은 이러한 내용 구성에서 지신의 내력과 치례 및 도섭, 월령가(月令歌), 여러 지신들을 호명하는 내용 등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셋째, 지신의 근본은 주초(柱礎) 밑이며, 상기등 주초 밑이라고 한 연행자도 있다. 주초는 기둥 밑에 받쳐 놓은 돌로 한국 전통 건축에서 기초가 되는 것으로, 나무기둥의 뿌리를 보호하여 집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터전과 공간을 주관하며, 집안의 생계를 유지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신이기에 주초 밑에 좌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전에 주초 옆 땅에 의례를 행한 흔적은 자신의 근본이 주초 밑이므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 행한 지신신앙의 의례로 해석했다.

지신의 내력은 전금순만이 노래하며, 그 무가에서 지신은 여성으로 고난하게 살다가 화통하게 되어 일상 속 여러 도＃을 행하게 된다. 이는 지신이 인간적인 모습에서 가정과 관련된 다양한 일에 관여하게 되는 영험한 존재로 변모한 것으로 분석했다.

넷째, 지신은 순 자[50尺] 키나 큰 봄 등으로 거대하게 표현되는데, 이는 자신의 창조신적 면모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즉, 여성 거신(巨神)인 마고 할미와 설문대할망이 지형을 창조하는 신인 것과 같이 지신도 여성 거신으로서 창조신적 특징을 지닌 신이었을 것이며, 지신신앙의 약화로 이러한 면모가 쇠퇴한 것으로 보았다. 지신의 모습은 뒷박이마, 유자 코, 병어 입, 주걱 턱 등으로 묘사된다. 지신의 생김새를 괴기스럽게 묘사한 것은 다른 가신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지신만의 특징인 점과 연행자들은 지신이 맵시 없게 생겼지만 복을 많이 불어 준다고 한 점 또한 흥미롭게 살펴보았다.

다섯째, 지신의 치례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지신과 무쇠로 옷·갓·지팡이를 표현한 경우, 그리고 지신이 큰 옷을 차려 입고 나오는 것을 묘사한 장면도 있다. 이에 지팡이는 걷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라는 점에 의해 지신이 집 안에 도움을 주는 신임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으며, ‘무쇠’는 지신의 강인한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한 의도로 해석했다. 지신이 큰 옷을 차려 입고 나오는 대목에서는 지신의 거대함을 표현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신의 치례를 통해서도 지신의 창조신적 성격과 지신이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여섯째, 지신은 방안과 주방 등의 집안 곳곳에 여러 살림살이를 불어 주고, 농사법을 마련함과 더불어 먹고사는 데 필요한 논·밭 등의 바깥 공간에 재복

을 불어 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듯 지신이 집과 관련된 생활공간과 바깥의 경제적 공간에 가정의 생계를 위한 다양한 것들을 불어 주는 모습에서는 지신의 재복신적 성격이 잘 드러난다.

일곱째, 다른 지역 지신굿과 비교하여 전북 지신굿의 특징과 중요성을 더욱 부각했다. 전북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지신굿은 전반부의 도입과 청신, 후반부의 지신께 발원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특히 평양의 돈 실어가는 노래, 경기도 심복순과 전남의 재복 주는 지신, 경기도 김수희의 〈업대감 타령〉 등에서는 지신의 재복신적 성격이 나타난다. 전남은 지신굿 사설이 온전히 채록되지 못하고 하락됐지만, 지신의 근본과 내력에 대한 일부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전북 이외 지역에서는 지신의 오신(娛神)에 중점을 두거나 중반부의 지신 관련 내용이 전혀 수록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지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편이다. 반면, 전북 지신굿에서는 9인의 연행자가 모두 중반부의 지신 관련 내용을 가창하며, 이 과정에서 지신의 근본과 생김새, 세간과 재복을 불어주는 특성을 비교적 상세히 묘사하여 지신과 지신 신앙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전북 지신굿의 독창성과 그 문화적 중요성을 부각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지역적 특색을 잘 보여준다.

전북 지신굿을 살펴본 결과, 지신은 우리 생활의 근간이 되는 터전과 공간을 주관하며, 주초(柱礎) 밑이 그 근본임을 규명했다. 또한, 지신은 집안과 농업에 관련하여 재물의 풍요를 책임지는 재복신으로서 가족의 안정과 번영을 도와주었기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섬겼던 신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주초 밑에 좌정된 지신께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고자 주초 주변 아래에 곡물 등을 넣고 의례를 행했을 것으로 해석했다. 현재 지신 신앙이 약화되어 집 뒤꼍에 좌정하며 장독대에서 의식을 진행하는 철용과 혼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철용 등 다른 가신들과 구별되는 지신만의 독자적인 신앙체계가 존재했음을 밝혀냈다.

이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었던 전북 지신굿의 내용 구성과 지신의 다양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전승이 단절된 전북 세습무의 무가 연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신 신앙의 독창적인 체계를 밝혀내는 최초의 시도로서 그 의의가 크다. 앞으로는 지신신앙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탐구하고, 다른 지역과의 비교 연구를 더욱 확장하여 다양한 지역의 지신신앙 간 상호작용과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로써 전통 신앙의 현대적 재조명과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논저

- 강화문화원 가정신앙조사단(편), 『강화의 가정신앙 1-2』, 서울: 민속원, 2010.
- 국립문화재연구소(편), 『한국의 가정신앙: 경기도 편』,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 국립문화재연구소(편), 『한국의 가정신앙: 강원도 편』,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a.
- 국립문화재연구소(편), 『한국의 가정신앙: 충청남도 편』,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b.
- 국립문화재연구소(편), 『한국의 가정신앙: 충청북도 편』,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c.
- 국립문화재연구소(편), 『한국의 가정신앙: 경상남도 편』,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a.
- 국립문화재연구소(편), 『한국의 가정신앙: 경상북도 편』,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b.
- 국립문화재연구소(편), 『한국의 가정신앙: 제주도 편』,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c.
- 국립문화재연구소(편), 『한국의 가정신앙: 전라남도 편』,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a.
- 국립문화재연구소(편), 『한국의 가정신앙: 전라북도 편』,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b.
- 국립민속박물관(편), 『한국의 식주생활사전: 주생활 1』,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19a.
- 국립민속박물관(편), 『한국의 식주생활사전: 주생활 2』,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19b.
- 권태효, 「여성거인설화의 자료 존재양상과 성격」, 『탐라문화』 37, 2010, 223~260쪽.
- 김길상, 『불교대사전』, 서울: 홍법원, 1998.
- 김동주, 「터주신앙과 업」, 『광장』 179, 1988, 258~269쪽.
- 김명자·장장식·홍태한·윤동환·염원희·유선영, 『강화 가정신앙 연구』, 서울: 민속원, 2011.
- 김명자, 「경기 지역의 터주신앙」, 『역사민속학』 9, 1999, 169~190쪽.
- 김명자, 「집과 가족을 일체화하는 가정신앙」, 『비교민속학』 32, 2006, 125~151쪽.
- 김병찬, 「지신밟기소리의 전승 원리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성식, 『전북의 무가』, 전주: 전북도립국악원, 2000.

- 김익두 외, 『정읍지역 민속예능』, 전주: 전북대학교박물관, 1992.
- 김태곤, 『한국무가집 1』, 서울: 집문당, 1971a
- 김태곤, 『한국무가집 2』, 서울: 집문당, 1971b.
- 김태곤, 『한국무가집 3』, 서울: 집문당, 1978.
- 김혜정, 「설문대할망 설화의 전승 양상과 신적 성격: 마고할미 설화와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63, 2019, 93~126쪽.
- 류상일, 「경남지역 지신밟기 성주풀이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문화재관리국(편), 「진도지방 무의식」,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4: 무의식편』,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3.
- 문화재관리국(편), 『강릉단오제 실측조사보고서』, 서울: 문화재관리국, 1994.
- 박순호, 『한국구비문학대계 5-4: 전라북도 군산시·옥구군 편』,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박순호, 『전북 전통 민속 下』, 전주: 전라북도, 1990.
- 부산광역시(편), 『동래지신밟기』, 부산: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2014.
- 서해숙, 「한국 터주신앙의 쌀 봉안의례와 문화권역」, 『지방사와지방문화』 12-2, 2009, 135~171쪽.
- 심상교, 「한국무속의 신격연구 1: 서울과 고성의 재수굿을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36, 2018, 365~414쪽.
- 안혜경, 「가정신앙에서 남·여성의 의례적 위치」, 『실천민속학연구』 7, 2005, 101~128쪽.
- 윤동환, 「강화도 가정신앙의 대상과 유형」, 『실천민속학연구』 17, 2011, 225~249쪽.
- 윤신향, 「박영희의 지신굿(1993/94), 민속음향의 이산 혹은 재현」, 『音·樂·學』 19, 2010, 121~152쪽.
- 이영금, 『전북 셋김굿: 전금순의 무가』, 서울: 민속원, 2007.
- 이은봉, 『한국고대종교사상: 천신·지신·인신의 구조』, 서울: 집문당, 1984.
- 이필영, 「가정신앙과 제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24, 2007, 389~440쪽.
- 임이나, 「공심 무조권과 무조신의 재해석」, 『한국고전연구』 27, 2013, 223~263쪽.
- 임이나, 「전북 시금굿 무가의 구성과 의미: 출포·김봉순·신귀녀·전금순 무가를 중심으로」, 『한국학』 165, 2021, 111~152쪽.
- 임석재, 「제79호 출포무악」,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11』, 서울: 문화재관리국, 1970.
- 정미영, 「지신밟기계 민속놀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정연학, 「한중 가신 신앙의 비교: 성주, 업과 재물신, 삼신, 터주와 토지신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35, 2008, 131~167쪽.

- 최길성,『한국무속지 1: 전남·전북·경남 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2.
- 최자운,「부산·경남지역 지신밟기 공연의 추이와 의의」,『한국민요학』40, 2014, 223~247쪽.
- 최자운,「평택의 가정신앙의 양상과 의미」,『평택문화연구』2, 2020, 43~62쪽.
- 최종성,「가정신앙에 대한 재고: 가정신앙의 범주, 신, 그리고 의례」,『종교학연구』27, 2008, 67~86쪽.
- 충청남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편),『가정신앙, 마을신앙: 집·마을·자연에 깃든 오래된 신령과 의례』, 충청남도·공주: 충청남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2.
- 하효길 외,『위도의 민속: 당제, 가신신앙, 세시풍속, 통과의례 편』,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1987.
- 홍태한,「강화군 교동도 가정신앙 전승의 다양성」,『도서문화』35, 2010a, 237~258쪽.
- 홍태한,「친정에서 따라온 가정신앙의 양상과 의미: 강화도의 사례를 중심으로」,『남도민속연구』20, 2010b, 411~433쪽.
- 황루시,『삼척의 가정신앙』, 삼척: 삼척시립박물관, 2015.

## 2. 기타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s://gochang.grandculture.net>.

##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터전을 주관하는 자신에 주목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사설 내용이 풍부한 전북 지신굿 무가를 통해 지신굿의 내용 구성과 그에 따른 자신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자신은 우리 생활의 근간이 되는 터전과 공간을 주관하며, 주초(柱礎) 밑이 그 근본임을 규명했다. 또한 자신은 집안과 농업에 관련하여 재물의 풍요를 책임지는 재복신으로서 가족의 안정과 번영을 도와주었기에, 사람들에게 중요한 신으로 숭배되었다. 이에 따라 주초 밑에 좌정한 자신께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고자 주초 주변 아래에 곡물 등을 넣고 의례를 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신신앙이 약화되어 이러한 의례가 사라졌지만, 주초에서 의례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한다. 자신신앙의 쇠퇴는 집 뒤뜰에 좌정하며 장독대에서 의식을 진행하는 철용과의 혼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자신신앙의 약화 이전에 철용 등 다른 가신들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신앙체계가 존재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전북 지신굿의 내용 구성과 자신의 여러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문서의 우수성과 예술성이 높았던 전북 세습무의 무가 연구에 기여할 것이며, 전북 지신굿의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무가 사설을 바탕으로 자신의 특징을 밝히는 최초의 시도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투고일 2024. 9. 13.

심사일 2024. 11. 20.

제재 확정일 2024. 11. 20.

주제어(keywords) 전북 지신굿(Jeonbuk Jisin Gut), 자신(Jisin), 무가(shaman song)

## Abstract

### Study on the Content Composition of Jeonbuk Jisin Gut and the Characteristics of Jisin

**Im, Nina**

This study focuses on the earth deity (Jisin), which is closely related to human life and governs the land. It examines the content composition of the Jeonbuk Jisin Gut (a traditional ritual) and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Jisin through the rich narrative content of its songs, especially in comparison to those of other regions.

The research findings reveal that Jisin governs the foundation and space fundamental to human life, with the area beneath the main pillar (jucho) serving as its core. Furthermore, Jisin is revered as a deity of wealth, responsible for the prosperity of families and agriculture, and plays a significant role in ensuring family stability and prosperity. Offerings such as grains were traditionally placed around the jucho to seek Jisin's assistance in supporting the family's livelihood. Although belief in Jisin has weakened over time, traces of these rituals can still be observed near the jucho. The decline in Jisin worship is also reflected in its blending with Cheollyung, a deity residing behind the house, whose rituals are conducted at the earthenware jar stand.

This study has uncovered a unique belief system centered around Jisin, distinct from other deities like Cheollyung, which existed before the decline of Jisin worship. Through this research, we gain insights into the previously overlooked content composition of Jeonbuk Jisin Gut and the characteristics of Jisin. Furthermor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research on the songs of Jeonbuk hereditary shamans, which are known for their high quality and artistic value. It represents a significant first attempt to analyze the content of Jeonbuk Jisin Gut in detail and elucidate the characteristics of Jisin, based on its narrative.